'마음의 그릇' 준비돼야 부처님 응신

☞ 17면에서 계속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그토록 살아 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해서 벗어나라고 하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내가 없는 도리를 체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 주세요.

답 그렇게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거는 자기가 있다는 증거거든. 자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못 뛰어든 거지, 자기가 없다는 거를 알았으면 뛰어들 것도 없고 뛰어들지 않을 것도 없지. 그냥 무사통과지. 그런데 자기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답답한 것도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내가 없다는 걸 알면 답답한 것도 없어. 왜냐하면 세월이 끝도 없고,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에 구경경지를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해.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나무니 돌이니 사람들이니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다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눈 달리고 귀 달렸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대승이 되고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하고 이럴 뿐이지, 그건 바람같이 그냥 자꾸 한데로 돌아 달아나가고 만다 이 얘기야.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듯 말이야. 우리가 만날 했던 거 되풀이하고 있잖어. 먹고 싸고, 되풀이하지? 그리고 자고 깨고. 그런데 그게 남아 있는 게 있느냔 얘기야.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니까 남아 있다 남지 않았다 이런 말도 붙일 게 없는 거지. 우리 먹고사는 것도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한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인생이 돌아가는 게 이 육신이 온 것만 해도,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참,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한탄 말고 열심히 닦아라 이 소리지. 열심히 닦으라니깐 또 뭐 닦을 게 있어서 닦으라는 줄 알지 말고. 물건이 없는데 닦을 게 어딨고 먼지 앉을 게 어디 있겠니? 육조스님 말씀말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자꾸 없어지는데, 내가 뚜렷하게 있어서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지금 상대를 부딪치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그 뜻을 알아야 불구덩이도 물 바뀌도, 지옥고도 늠름히 갈 수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발자국마다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따로 없다 이거야. 지금 산 사람들도 탈렌트들이고, 죽은 영들도 탈렌트 영들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연극이고, 모두 전설의 고향 같고 그래.

그러니까 먹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입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살 양으로 사람 죽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한 불도량에는, 그 한 도량은 너무나 신선하고 좋아서 낙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여기서 살 때 보던 물질적인 것들을 다 보고 해보기도 하고 이러고 돌아가니까 그게 극락이지 어디냐? 그래서 그런 극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중세계를 벗어나니까 극락이다 이거야. 그러니 살아 생전에 이곳에서 그 불도량의 맛을 봐야지 어디 가서 다음 세상에 그런 것을 기대할 데가 있겠나?

질병의 고통 벗어나려면…

문 사람마다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스님의 법을 만나게 되어서 제게 닥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스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오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루어야 궁극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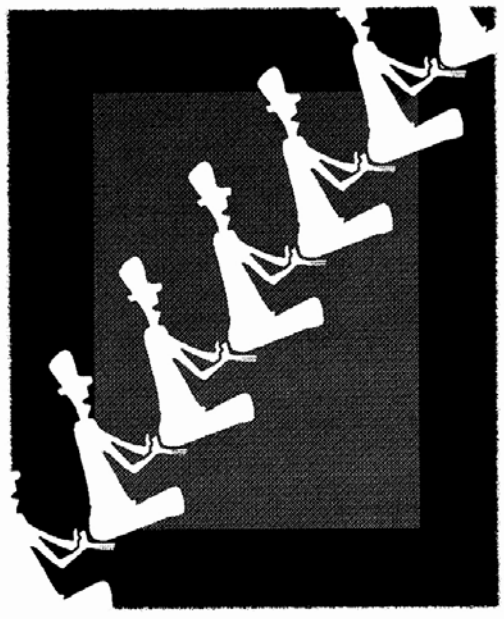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 꺼지는 것만 보게 되지 전력이 들어으고 나가는 거는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말하자면 이 천지와 우주 전체에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거를,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하고 거기에다 놨을 때는, 부처님 마음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순간 한찰나에 나투셔서, 약사로 나투어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의 그릇이, 즉 마음의 그릇이 돼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나투시니까 즉 응신으로 나투어서 약사로 나툰다는 겁니다, 화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같이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모두들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모두를 과학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찰나에 드시고,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이, 즉 깨우친 사람이라야만이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 거기에다가 그냥 받아준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하셔서 거기 응해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재료로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코 믿어야만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참 생명수의 맛을 볼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부가 되는지…

문 예전에 스님께서 수레를 끄는 당나귀와 그 당나귀를 심하게 다루었던 주인이 남편과 부인으로 나와서 반대로 무척 맞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부부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할 적에 똑같이 또 부부로 태어납니까? 몹시도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구박을 많이 해서 다음에 몸을 바꿔서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답니다. "당신은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가 되고, 한번 바꿔서 살아볼까 하노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수 해를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이튿날 부인이 마저 죽더랍니다. 그 부인과 남편이 하루사이에 죽으니까 장사도 같이 지내버리고 제사도 같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자식들 꿈에 말입니다. 부부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얘야! 아버지는 너희 자식으로 나가느니라. 그런데 나는 여기서 태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 "너희 아버지는 너희 집 딸로 태어나고, 나는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나야겠다." 이러더랍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아내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자식이 꿈을 꾸고선 야! 이상하다고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정말 있었던 이야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하셨느냐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먹고 가느냐는 게 제일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바세계의 모든 거를 다 그냥 훌떡 벗어버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선한 것도 놓고 악도 놔라!" 이랬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데는.

왜냐하면 선하게 살다보면 또 악이 붙어 돌아가니까 선도 놓고 악도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굳이 뭐, 나온다 들어간다 할 것도 없죠. 왜? 여러분이 난데 내가 왜 몸을 받아서 또 나옵니까? 여러분도 이왕 나온 몸들도 많은데, 그렇죠? 아, 순간순간 여러분이 내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모습을 좀 잘 그려가지고 나왔다 하면 너 집이 참 잘 돼 있구나, 그러면 거기 좀 들어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유자재하고 살 생각을 한다면 그렇구요. 그렇지 않고 살면서 싸우고 고생을 하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도 정이 드는 것이 좋다면 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그 몸 그 모습으로 얼마 더 살겠습니까 화나더라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구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살면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면서, 그저 화가 나시더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남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혜로운 폭넓은 그런 대장부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아주 늠름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을 자기의 한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님! 불교TV 나옵니다.

2002년 3월부터 전국 산중사찰 및 난시청 지역에서도 불교TV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2월말까지 예약가입 할인 행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입자에 대한 혜택
- 예약가입기간: 2001년 12월3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 예약가입기간에만 위성수신기를 한대당 69,000원에 할인판매 (3월부터 정상가격으로 환원 200,000원이상)
- 가입비 및 설치비: (40,000원) 무료
- 1개월 무료 시청

월 시청료
- SKY-ON(불교TV를 비롯하여 32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8,000원**
- SKY-무비(SKY-ON+영화채널 7개등 총 39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12,000원**
- SKY-패밀리(전채널 시청 총 72개 채널+오디오 40채널): **월 18,000원**

btn

예 약 가 입 전 화
불교TV 사업부 02-3270-3366~7

※수신기 설치는 2002년 2월부터 3월중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 수신기(KBS시청 가능수신기)는 희망시 교체가능 합니다.